

한·칠레 FTA 발효 1년의 평가와 농산물 교역 변화

# FTA 피해 유무 논쟁 시기 일러 부적절

수입 다소증가, 민감품목 특별취급으로 파급효과 적고 천천히 나타나  
추후 협상서도 품목별 가격 및 비가격 경쟁력 등 신속성 반드시 확보해야

2004년 4월 1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일년이 채 안되었지만 양국간 FTA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대책 등이 각종 매체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대칠레 수입은 큰 폭으로 늘고 수출은 소폭 증가하여 밑지는 협상을 했다거나 공산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농산물 수입은 별로 증가하지 않아 FTA의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는 내용 등이다. 특히 농산물 수입이 당초 예상한 만큼 증가하지 않아 앞으로 다른 나라와의 FTA를 추진할 때에도 농산물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과연 그럴까? FTA 발효 이후 길지 않은 기간이 경과하였지만 FTA 체결의 영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칠레산 농산물 수입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단 수출입 통계상으로 볼 때 한국과 칠레간 교역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하였다. 하

지만 칠레와의 교역 증가가 반드시 FTA 발효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칠레산 상품에 대한 국내 수요 증가나 수요의 계절적 변동, 또는 수입가격의 급등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해 수출입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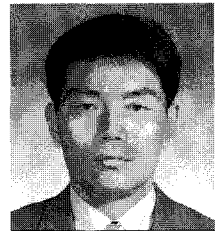
칠레와의 교역 증가가 FTA 발효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 전후의 교역액은 물론 계절성 상품의 경우 예년 같은 기간의 교역액과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만일 두 가지 모두 FTA 발효 이후 증가했다면 일단 FTA 발효로 인한 교역 증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FTA 발효 이전보다 증가했지만 예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증가하지 않았다면 FTA의 효과라기보다 계절적 수입 증가로 볼 수 있다. 또한 예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증가했지만 금년 FTA 발효 이전에 비해서는 증가하지 않았다면 FTA 체결 외에 다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4년 11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 칠레 총

수입은 17억6천만 달러로 2003년 수입총액 10억58백만 달러보다 66.4%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전 최고 수입액인 1995년의 10억2천만 달러보다도 72.4%나 늘어났다. 양국간 FTA가 발효된 2004년 4월 이후 11월까지 우리나라의 대칠레 수입총액은 12억47백만 달러로 2003년 같은 기간의 7억23백만 달러에 비해 72.5%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4년 4월 FTA 발효 이후 월평균 수입액은 1억56백만 달러로 FTA 발효 이전인 3월까지의 월평균 수입액 1억71백만 달러에 비해 오히려 9% 줄어들었다. 2004년 들어 FTA 발효 이전에 이미 수입액이 상당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칠레 수입액 증가는 FTA 발효보다는 2003년 말과 2004년 초의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 칠레 수출은 2004년 11월 말 현재 약 6억34백만 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4억71백만 달러에 비해 34.6% 증가하였다. FTA 발효 이후인 2004년 4월부터 11월까지의 수출

액도 4억98백만 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3억42백만 달러에 비해 45.5% 증가하였다. 또한 2004년 4월 FTA 발효 이후 월평균 수출액은 62.2백만 달러로 FTA 발효 이전의 월평균 수출액 45.6백만 달러에 비해 3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칠레 수출 증가는 양국간 FTA 발효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어 명 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FTA 발효와 칠레산 농림축산물 수입 변화

FTA 발효 이후 칠레산 농림축산물 수입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4월부터 11월까지의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72.8백만 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49.2백만 달러에 비해 48.3% 늘어났다. 그러나 농산물은 생산과 소비의 계절적 변동이 커서 FTA 발효로 인한 수입 증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FTA 체결 전후의 수입액과 함께 지난 해 같은 기간의 수입액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분석 대상 품목은 과거 수입액 규모에 따라 돼지고기, 포도, 포도주, 키위, 토마토 페이스트, 그리고 유장의 여섯 개로 선정하고 FTA 발효로 인한 수입

표 1. 한·칠레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달러)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1995	636.5	1,020.9	-384.4
2000	593.0	902.0	-309.0
2001	572.6	696.1	-123.5
2002	454.0	753.9	-299.9
2003*	471.3	966.9	-495.6
(2003 1/4분기)	(129.4)	(243.9)	(-114.5)
2004*	634.2	1,760.2	-1,126.0
(2004 1/4분기)	(136.7)	(-513.7)	(-377.0)

\* 1월부터 11월까지의 자료임. \* 자료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표 2. 칠레산 농축산물 주요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 천 달러)

주요품목	FTA 양해내용	2003년		2004년		FTA 발효 이후 증감율(%)	
		1-3월	4-11월	1-3월	4-11월	전년 동기 대비	2004년 1-3월 대비(월평균)
돼지고기	10년내 철폐	5,200	21,785	11,760	37,732	73.2	20.3
포도	계절관세	4,453	9,203 (4,390)	4,460	8,666 (4,913)	-5.8 (11.9)	-27.1 (10.2)
포도주	5년내 철폐	511	1,997	1,294	5,628	181.8	63.1
키위	10년내 철폐	0	1,758	0	2,885	64.1	∞
토마토	5년내 철폐	0	262	101	652	148.9	142.1
페이스트							
유장	TRQ/재협상	22	93	32	106	14.0	24.2

\*주 : ( )속은 4월 한달간 포도 수입액임.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증대 효과를 계측하였다.

먼저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액은 FTA 발효 이후 11월까지 37.7백만 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21.8백만 달러에 비해 7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TA 발효 이후의 월평균 수입액은 발효 이전에 비해 약 20.3% 증가에 머물러 FTA 체결 외에 다른 효과도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4년 4월 이전에도 돼지고기의 월평균 수입액이 전년 대비 126%나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 증가는 국내 소비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FTA 발효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칠레산 신선포도 수입액은 FTA 발효 이후 11월까지 8.7백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2백만 달러보다 오히려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산 포도의 성수입기가 4월부터 6월이라는 계절성을 감안하면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포도 수입에는 영향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계절관세가 부과된 2004년 4월 수입액은 4.9백만 달러로 2003년 4월의 4.4백만 달러보다 증가한 것은 물론 예년 4

월 평균 수입액보다도 40%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4년 5월 이후 포도 수입이 지난 해에 비해 감소한 것은 계절관세가 만료되어 FTA 체결의 효과가 중지된 5월과 6월의 수입이 지난 해보다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FTA 체결은 칠레산 포도 수입 증가에 분명히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5년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칠레산 포도주 수입액은 FTA 발효 이후 11월까지 5.6백만 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수입액 2.0백만 달러에 비해 63.1% 증가하였다. 또한 FTA 발효 이후의 월평균 수입액은 0.8백만 달러로 발효 이전인 2004년 3월까지의 월평균 수입액 0.4백만 달러 보다 두 배 정도 증가하였다. 포도주 소비는 계절 변동 폭이 별로 없으므로 칠레산 포도주 수입이 증가한 것은 거의 전적으로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의 효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0년내 관세 철폐 품목인 칠레산 키위의 FTA 발효 이후 수입액은 2.9백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백만 달러에 비해 6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위는 계절적 특성

상 4월 이후에만 수입되므로 2004년 키위 수입이 2003년은 물론 예년의 수입액에 비해 증가한 것은 FTA 발효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FTA가 발효된 이후 11월까지 토마토페이스트 수입액은 65만 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26만 달러에 비해 149%나 증가하였다. 또한 월평균 수입액도 FTA 발효 이후 무려 142%나 늘어났다. 소비의 계절적 변동 요인이 거의 없는 토마토페이스트 수입이 2004년 4월 이후 크게 증가한 것은 매년 20%씩 관세율이 감축되는 FTA 발효의 효과로 볼 수 있다.

관세를 쿼터(TRQ)를 할당하고 DDA 협상 타결 이후 재협상하기로 한 유장 수입액은 FTA가 발효된 이후 약 11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9만 달러에 비해 14% 증가하였다. 월평균 수입액도 FTA 발효 이전에 비해 24.2%나 늘어났다. 따라서 칠레산 유장 수입은 FTA 발효의 영향으로 인해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칠레산 유장 수입이 예년 수준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FTA 협정에 따라 설정된 TRQ 물량(1,000톤) 수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FTA 추진, 신축성 확보해야

칠레와의 FTA 발효 이후 칠레산 농산물 수입은 분명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와 키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실류가 식물검역 문제로 수입 금지된 상태에서 FTA 발효로 주요 농산물 수입이 증가한 것이다. 다만 민감 품목에 대한 예외 품목 설정과 계절관세 도입,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관세 철폐 등 다양한 양허계획으로 인해 수입 증가 폭이 당초 예

상보다 낮았다. 특히 2004년 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신선포도도 실제로는 FTA가 발효된 기간에는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도주와 키위, 토마토페이스트, 유장 등 대부분 품목의 수입이 FTA 발효를 계기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액이 가장 많은 돼지고기도 FTA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수입액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FTA 발효로 인해 칠레산 농산물 수입이 증가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 수입 대상국이 제3국에서 칠레로 전환된 무역전환효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포도주는 프랑스와 미국, 키위는 뉴질랜드, 토마토페이스트는 미국 등 기존 수출국이 칠레로 전환된 것이다. 수입이 없던 품목을 새로이 수입하는 교역창출효과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칠레산 과실류에 대한 식물검역 관련 수입금지가 해제된다면 과실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FTA 발효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났다고 보기 어려운 현 시점에서 칠레와의 FTA가 우리 농업부문에 미치는 피해가 없었다거나 미약했다는 주장은 진실을 왜곡하는 수박 겉기식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처음 체결한 FTA였지만 장기간에 걸친 협상 과정에서 농업계의 다양한 우려를 반영하여 민감품목들에 대해 다양한 특별취급을 관철한 결과 농업부문에 미치는 과급효과가 당초 예상보다 적게, 그리고 천천히 나타나고 있는 것 뿐이다. 따라서 앞으로 다른 나라와 FTA를 추진할 경우에도 국별 농산물 품목별 가격 및 비가격 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민감품목에 대한 특별취급 등 신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Y